



뮤지컬 마타하리는 한국 뮤지컬이 지닌 저력을 보여준 대형 창작 뮤지컬로 배우들의 명연기와 무대가 빛을 발한 작품이다. 라두 대형 역의 김준현(맨 왼쪽 사진 가운데)과 고혹적인 춤을 선보인 마타하리 옥주현, 아르망 역의 엄기준(왼쪽부터).



라두 대형 역의 김준현(맨 왼쪽 사진 가운데)과 고혹적인 춤을 선보인 마타하리 옥주현, 아르망 역의 엄기준(왼쪽부터).

125억짜리 마타하리, 지루함과 황홀함 사이...

양형모의 아이러브 스테이지 뮤지컬 마타하리

홍형 작곡가 와일드혼의 극적음악 11년 무대내공 옥주현의 명품연기 “불 것이 무대뿐...” 정반대 평가도

“마지막 태연한 표정으로 키스를 우아하게 보내고/조심히 잊지 못할 기억을 쥐/음악이 끝난 후에도/영원할 내 춤을” (마타하리 ‘마지막 순간’ 중에서)

마타하리는 자신의 운명을 예견했던 절가. 처형대에 선 마타하리는 신조차 호흡을 잊을 만큼 고혹적인 자신의 육체에 총알이 박히기 전, 오른팔을 길게 휘둘러 키스를 날린다. 그리고 탕! 탕! 탕!

뮤지컬 마타하리를 어떻게 말해야 좋을까. 국내 창작 공연물 초유의 제작비(125억)를 쏟아 부은 대형 뮤지컬. 이 한 줄로 마타하리를 설명할 수

는 없다. 돈으로 예술을 살 수는 있지만, 돈만으로 예술을 완성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뮤지컬이다. 환상적인 무대, 마타하리를 맡은 두 배우(옥주현과 김소향)의 황홀한 노래와 연기, 홍형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의 극적인 음악에 환호하는가 하면 “불 것이 무대밖에 없다”, “지루하다”, “결국 그렇고 그런 사랑 이야기일 뿐”이라는 평가도 있다.

모두 사실이다. 다만 관객의 취향으로만 단정하기엔 적언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 작품은 이 모든 걸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객의 극단적인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다. 버리면 굳이 욕을 먹지 않아도 될 것들을 눈 딱 감고 쟁겼다. 마타하리는 그런 뮤지컬이다.

●세계적인 극작가·작곡가도 찬탄한 환상의 무대

옥주현(마타하리)과 김준현(라두 대형), 엄기준(아르망) 캐스팅으로 마타하리를 보았다. 마타하리는 1900년대 초반 유럽 전역을 누비며 활동했던 댄서였다. 저 유명한 프랑수아 파리의 물랑루즈에서 도발적인 밸리댄스를 선보이면서 대중의 스타로 부상했다. 이국적인 미모와 신비로운 분위기, 당시로서는 파격을 넘어 충격을 안겨준 반 누드댄스는 마타하리란 이름을 ‘여신’과 동격으로 만들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그녀의 본명은 마가레타 게르트루드 젤르. 마타하리란 예명은 국내에서도 드라마제 목으로 유명한 ‘여명의 눈동자’란의 미를 지닌 말레이시아어였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게 매수된 스파이라는 혐의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되어 1917년 10월 15일 새벽에 총살을 당했다.

1999년 비밀 해제된 영국의 1차 세계대전 관련 문서는 마타하리가 독일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밝혀 다시 한 번 이

사건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옥주현은 마타하리를 통해 11년간(2005년 아이다로 데뷔) 뮤지컬 배우로서 쌓은 내공을 아낌없이 펼쳤다. 고혹스러운 댄스 장면에서는 ‘시카고’의 록시 하트가, ‘아르망’과 사랑에 빠진 귀여운 여인에서는 ‘황태자 루돌프’의 마리 베체라가 그려졌다. 사랑을 찾아 목숨을 걸고 베를린으로 떠나는 모습에서는 ‘위키드’의 엘파바가 중첩됐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처형대에 선 그녀에게서 ‘죽음(토드)’의 품에 안겨 눈을 감는 ‘엘리자벳’ 황후가 떠올랐다면 과한 감상일까.

프랑스 정보국의 수장인 라두 대형은 당대의 스타인 마타하리에게 어두운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프랑스의 스파이가 될 것을 강요한 인물이다. 마타하리를 이용할 대로 이용해 먹고는 정작 그녀가 거꾸로 독일의 스파이로 몰려 사형을 당할 때 의뎉한 차가운 사나이이기도 하다. 남성미 넘치는 배우 김준현이 라두를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비련의 남자 역할 묘사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 온 엄기준은 아르망에 적역이다.

무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뉴시즈, 하이시즈 뮤지컬, 올리버 등을 연출한 제프 칼튼, 엑스칼리버, 보니 앤 클라이드, 데스노트의 대본을 쓴 아이반 멘첼, 지킬 앤 하이드, 황태자 루돌프, 몬테크리스토의 명 넘버들을 쏟아 낸 프랭크 와일드 혼 등 세계적인 크리에이터들조차 찬탄을 금치 못했던 아름다운 무대는 오페라의 작품이다. 여섯 개(더 많을지도 모른다)의 세로 기둥이 돌아가는 ‘회전문 무대’는 그저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 뿐이다.

마지막으로 딱 한 줄만 더. 사람에게 따라선 조금 지루할 수도 있다. 좀 더 긴 1막이 특히 그렇다. 프랭크 와일드혼의 넘버들은 작품에 따라 기록이 큰 편인데다 비슷비슷한 멜로디가 작품마다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마타하리는 중간 쏘인다. ranbi@donga.com

신시컴퍼니 박명성 대표의 ‘프로듀서 고백’

■ 신간

●이별 줄 알았다(박명성 저|북하우스)

국내 대표적인 연극·뮤지컬 제작사인 신시컴퍼니의 박명성 대표가 쓴 ‘프로듀서 룬(論)’이다. ‘박명성’이란 이름이 국내 공연계에서 지닌 무게는



매우 무겁다. 그는 지난 20여 년간 한국 뮤지컬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주도한 공연제작사의 대표이자 최고의 프로

듀서이다.

‘맘마미아!’, ‘시카고’, ‘아이다’ 등 제작하는 뮤지컬마다 흥행열풍을 일으켰다. 국내 최장기 공연 및 최다 공연, 최다 관객 동원, 최대 매출 등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공연계 미다스의 손이다. 조정래 작가의 소설을 뮤지컬화한 ‘아리랑’ 등 대형 창작 뮤지컬도 그의 손에 의해 빛어졌다.

이 책 ‘이별 줄 알았다’는 작품 선

택부터 제작, 홍보까지 공연 프로듀서가 경영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고민들이 담겨 있다. ‘어떤 작품을 올려야 하는가’, ‘프로듀서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프로듀서는 예술가인가 사립가인가’, ‘배우 기용의 원칙은 무엇인가’와 같은, 프로듀서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 하고 공감하는 이야기들을 다뤘다.

저자는 “프로듀서는 예술가들이 완

벽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명성을 짊어주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공연이 성공하면 ‘모두의 것’이 되지만, 실패하면 ‘모두의 책임’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프로듀서이다.

저자 박명성은 자신의 길을 견고자하는 이들에게 외친다.

“고만고만한 프로듀서로 남을 것인가, 가슴 뛰는 삶을 살 것인가!”

양형모 기자

오늘의 채널A 아내가 뿔났다 7일 밤 11시



박미선 감동시킨 이봉원의 요리

박미선·이봉원 부부가 군산에서 ‘먹방여행’을 펼친다.

이봉원은 아내를 위한 남편밥상을 차리기 위해 군산의 수산시장을 찾아 싱싱한 해산물을 산다. 그는 약 100년의 역사를 이어온 낭만적인 게스트하우스에서 도다리, 주꾸미 등으로 요리를 선보인다. 그러나 주재료인 주꾸미 손질부터 위기에 봉착한다. 이봉원은 “주꾸미가 문다”며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완성한 요리는 ‘주꾸미볶음’과 ‘도다리숙주’이다. 남편의 요리를 맛본 아내 박미선은 “지금까지 남편밥상 메뉴 중 1등”이라며 칭찬한다.

이봉원의 요리를 만드는 과정이 밤 11시 공개된다. 이경후 기자 thiscase@donga.com

편집 | 최재경 기자 hk7048@donga.com

오늘의 날씨

4월 7일 목요일 (음력 3월 1일)

인천 80/10

11/18

서울 80/10

10/20

춘천 80/10

10/20

강릉 80/10

9/15

대전 80/10

10/20

청주 80/10

10/19

울릉도 60/30

9/13

광주 90/10

13/21

전주 90/10

12/19

대구 90/10

11/19

부산 90/20

14/18

제주 90/20

16/18

해돋이

06:09

해질

19:00

달출몰

05:59

달입몰

18:47

지역 준비을 확률 (오전/오후)

날씨 (최저/최고기온)

주간 날씨

서울/경기

영동

충청

호남

영남

제주

8일(금)

7/18

7/18

8/19

9/22

11/23

11/18

9일(토)

7/20

3/20

7/21

8/22

8/22

11/19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2020-1010

구독신청 1588-2020

FAX 02-2020-1015

www.sportsdonga.com

(우)03187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계천로 1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발행인 송영민

대표전화 02-2020-0114

편집부 02-2020-1032

판권인 이원준

스포츠1부 02-2020-1041

스포츠2부 02-2020-1059

편집국장 양성호

연락처 02-2020-1065

광고국장 이송욱

연락처 02-2020-1062

인쇄 동아일보사

사진부 02-2020-1069

TV 프로그램 7일(목)

채널A 02-2020-3100 KBS 02-781-1000 MBC 02-780-0015 SBS 02-2113-5000 TV조선 1661-0190 JTBC 02-751-6000 MBN 02-2000-3114 EBS 02-526-2000 ㉠재방송!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채널 A	KBS 1	KBS 2	MBC	SBS	TV조선	JTBC	MBN	EBS 1	지역민방
5:40 특별기획<그들처럼 먹어라>㉠ 6:40 굿모닝 A	5:10 내고향 스페셜-남도지오그래피 6:00 뉴스광장	6:00 2TV 아침(1, 2부)	5:10 건강플러스㉠ 6:00 MBC뉴스투데이(1, 2부) 7:50 아침드라마-내일도 승리㉠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55 중계방송 제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초청 2차	5:10 굿모닝 510-생활의 발견 6:00 모닝와이드(1, 2, 3부) 8:30 아침연속극-내 사위의 여자㉠ 9:10 좋은 아침㉠ 10:10 뉴스 10:25 생활경제 11:00 생활의 달인㉠	5:40 내 몸 사용 설명서㉠ 6:50 TV조선 뉴스7 7:20 생방송 광화문의 아침 8:20 TV조선 뉴스9 9:40 정현준의 신동방송 11:10 송지연 연예토크 호박씨!㉠ 12:40 엄정성 정혜전의 뉴스를 소다	5:50 글로벌 백세로드-진시황㉠ 7:00 마법천자문2 7:30 JTBC뉴스 아침엔 9:00 글로벌 백세로드-진시황 10:10 차이나는 도를 11:20 쿡가대표㉠ 12:55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	4:30 현정표 특종세상㉠ 5:40 전기뉴스 스페셜 6:40 굿모닝 MBN 8:00 아침의 창 매일경제 9:20 뉴스파이터 10:40 전국네트워크뉴스 10:50 아궁이㉠ 12:40 알토란㉠ 1:50 기막힌 이야기 실재상황㉠ 3:10 뉴스 빅5 4:40 뉴스 & 이슈 6:10 MBN뉴스와이드 7:40 MBN뉴스8 8:40 아궁이㉠ 9:50 리얼다큐(송)	5:00 EBS생방송 5:40 세계견문록 톨라스 7:00 지파티스 7:30 꼬마버스 타요 8:00 동물농장 8:05 동물농장 유지원1 8:05 트트 속속 알라차 8:40 방귀대장 똥방이 9:00 송지연의 친구들(종합) 9:30 씨앗소년 동문원 9:40 달라졌어요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세계테마기행 12:10 통일의 길 12:45 연중기획-미래를 여는 교육 13:40 오 마이 미래 2035 14:00 코로롱2 14:30 최강전사 미니극공대㉠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20 꼬마 철학자 휴고 18:00 생방송 특목 보너하니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9:30 뉴스 19:50 건강 프로젝트 바우민 산다 20:40 다큐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열도의 낭만, 절경, 핫카이다> 21:30 한국기행<도시에서 살고 있다> 21:50 EBS스페셜 프로젝트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글로벌 가족 정착기-한국에 산다㉠ 24:30 EBS스페셜 공감 1, 2	TJB (대전) 042-281-1101 11:00 전국 톨10 가요쇼 18:05 다문화뉴스 18:30 생방송 투데이 1:00 다문화뉴스(한국어 국립공립) CJB (창주) 043-279-3800 10:25 한국의 맛 11:00 전국 톨10 가요쇼 18:05 2016 국회의원 선별 총선후보 초청토론회-전국연합 KNN (부산 경남) 051-850-9000 7:30 모닝와이드 15:00 세상발견 유레카 18:25 생방송 투데이 1:00 톨10 콘서트 화통 TBC (대구) 053-760-2200 11:00 제3교실 14:00 테마 스페셜 18:20 전국 톨10 가요쇼 1:05 TBC특선다큐 UBC (울산) 052-228-6200 11:00 열린예술무대 뒤편 14:00 테마 스페셜 18:20 생방송 유레카 1:00 톨10 콘서트 화통 KBC (광주) 062-650-3094 7:30 모닝와이드 14:05 세상발견 유레카 18:15 고향전통 밥상에 실어라 1:00 테마 스페셜 JTV (전주) 063-250-5350 12:30 고향이 보인다 17:30 특집 20대 총선 1:00 톨10 콘서트 화통 G1 (경원) 033-248-5000 5:10 굿모닝스페셜 10:25 열린 예술무대 뒤편 12:30 고향이 보인다 1:00 테마 스페셜 OBS (경기 안성) 032-670-5000 14:55 행복 부동산 18:55 경기도 정책을 말한다 21:05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시흥을 후보자 토론회 23:05 더스 2 건강의 정석